

유월의 텃밭에서

노명현

그해 유월의 연평은 푸른 꿈결이다.
어머니의 기상나팔 음은
달콤한 뇌혈관을 타고 초여름 갑판 위로
일사불란하게 출렁거린다. 하나, 둘, 셋...
초계함 사령부 격실을 단숨에 꿰뚫듯
삭히지 못한 간밤의 기합들이
칼바람 눈보라에 화를 친다.
목젖 터진다.
십수 년 전 아버지의 여름도 지금처럼
추웠을까.

직각으로 떠지 못한 식판을 몇 모금 뒤로 물리고
완전군장으로 투입되던 함포 사격대 위로
펼쳐지던 하얀 살점의 실루엣, 그 속에서
육 개월을 들고 나면 왼쪽 가슴 위로 봉긋이
솟아나던 고향 금순이의 젓무덤 같은 노란 막대기 두 개가
검푸른 바다를 누빈다.
평행선을 달린다

"니 총부리는 과연 누구를 겨누고 있노?
포신 너머 주적(主敵)이가, 아이모 니 자신은 아닌겨?"
하던 경상도 철학과 선임은
그래도 수학은 이분법이 제일 쉽다며
우쭐거린 담배 연기 사이로 피어오르던 전우애

바람은 날 선 칼같이 하얀 앞바다를 지나면
아버지의 정글은 십 년째 가려움 투성이
선자(先者)의 살갓을 비집고 나오는 낫술에 절은 군가 소리가
홍해의 기적처럼 비린 바다를 갈랐다.

함선의 이유 있는 뻘치기 경계근무보다
백마 전선의 의미 있는 과병은 용감했다.
귓전을 떠들던 어머니의 훌쩍거린 손수건은
부산항 뱃머리에 머물고
막걸리 한 사발처럼 간단히 세워 들이킨 제국 깃발을
훈장인 양 달고 상륙하던 당당함은
무궁화 꽃이 되지 못하셨나요.

부비트랩(booby trap)에 빠지셨나요.

물 좀 주소, 물 대신
뿌려지던 하이얀 분수, 타들어 가는 생명 위로
하늘에서 내려주던 오아시스를 마시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병영 철길 따라 천천히
천국의 계단 밟아 오르신 임을 위한 행진곡,
제국의 방패로도 풀지 못한 스무 고개를
어이하어 넘으셨나요.

강석(剛石)을 뚫고 피어나는 대나무 꽃(竹葉)처럼
눈물의 순정이 혹은 무수한 어둠의 결정(結晶)이
밤바다의 별이 되어 떠도는 아버지,
윤 대위의 녀인가요.

아, 어머니 물이 되어 다시 만나자며
사립문 밟아 오랜
기다림을 태우시다.
별의 씨앗을 이곳에 뿌려 놓고
그리움의 가지 꺾어 홋줄 위에 매어달고
바람의 뉘트로 꾸부정 산길 돌아
장산꽃매 마루 넘어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셨나요.

해마다 유월이면
포선 위로 돌아나는 휘파람
새벽 냉전을 지켜 섰을
수병의 맑은 눈동자처럼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내 기억의
텃밭 한 칸
가위눌린 서리로 앉아
그리운 바다,
긴장된 네이비블루 위로
하얀 마후라 같은 총상 꽃차례가
춤을 추고 있었다.